

나주꿈자람어린이도서관, 여름방학 독서문화 행사 ‘풍성’

어린이 창의력 키우는 맞춤형 독서 체험 운영



꿈자람 탐조원정대 어린이들이 빛가람호수공원에서 탐조 활동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책을 읽고, 만들고, 공연을 즐기며 여름방학을 더욱 특별하게 보낼 수 있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이 어린이들을 찾아온다.

나주꿈자람어린이도서관이 유아부터 초등학교, 가족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과 공연, 전시를 마련해 어린이들의 독서 흥미를 높이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시간을 선사한다. 31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여름방학을 맞아 나주꿈자람어린이도서관에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연령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과 가족 친화형 문화 콘텐츠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감독서 체험

과 협동 창작, 그림책 빛그림 공연, 원화 전시 등 5개 분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유아(6~7세)와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과 여름 음식 탐험대’(8월 4일·11일)는 그림책을 읽은 뒤 여름 제철 과일인 복숭아를 활용해 타르트를 직접 만들며 오감으로 독후활동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1~4학년을 위한 ‘그림책 창작소-그림자극 만들기’(8월 6일·13일)는 그림책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하고 그림자 인형을 직접 제작해 친구들과 함께 하나의 공연을 완성하는 협동 창작 프로그램으로 창의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서성택 기자

담양군, 8월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화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집중 홍보

담양군은 8월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이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한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구분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담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담양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고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이 대상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하천 등 물놀이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민과 관광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이에 화순군은 물놀이 안전 홍보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현장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 5곳에 안전관리요원 11명을 배치해 위험요인 사전 예찰, 안전지도, 이용객 안내,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 폭염 대응 총력... 군민 안전 지킨다

1인당 연 25만 원 지원!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폭염 대비 살수차가 도로에 물을 뿌리고 있다.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다양한 폭염 대응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예년보다 기온이 높고 폭염도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군민의 건강과 안전이 어느 때보다 위협받고 있다. 이에 영광군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군은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도로 표면 온도를 낮추기 위해 살수차 2대를 운영하고 있다. 영광읍을 비롯해 시가지가 형성된 흥농읍과 법성면의 주요 도로에 물을 뿌려 폭염으로 인한 체감 온도를 낮추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고령자와 농어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생수 2만 병, 부채 5천 개, 쿨 도시 1천500개 등 군민 체감형 폭염 대응 물품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배부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호와 예방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더위 쉼터 397곳의 냉방 시설을 점검하고, 폭염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며, 폭염 예방수칙을 홍보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해 군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기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군민 모두가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진기 기자

“교육부터 취업까지... 장성군이 함께 합니다”

27일 ‘이알피(ERP) 실무교육’ 수료식... 8월부터 소형 굴착기 교육 시작

장성군이 지난 27일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알짜배기 일자리 지원사업-직무역량 업(up) 클래스’ 수료식을 가졌다.

‘알짜배기 일자리 지원사업-직무역량 업 클래스’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한 실무 역량 강화 수업이다. 군은 앞선 13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총 30시간에 걸쳐 ‘이알피(ERP) 물류전산입력시스템’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생이 배운 내용을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물류관리의 기초 이해부터 구매, 재고, 판매관리, 문서작성, 프로젝트 실습에 이르기까지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수료식에선 총 15명이 교육생들이 참석해 수료증을 받고 격려와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오는 8월 25일부터 26일까지는 3톤 미만의 소형 굴착기 실무교육이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은 총 12시간으로 구성되며, 수업료는 40만 원이다. 전 과정을 이수하면 경제적 부담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



장성군, 직무역량 업 클래스 수료식 개최 사진

/장성군 제공

다. 군은 수료 시 본인부담금 10만 원을 제외한 30만 원을 교육생에게 지원해준다.

교육에 그치지 않고 취업에도 힘쓴다. 장성군은 수료생들이 지역 내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8일까지며, 이메일로 신청서를 보내거나 장성군 청년센터 ‘아

우름’(061-390-7704)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형 교육과 내실 있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앞으로도 구직자의 취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과 일자리 연계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섭 기자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